

한국 뮤지컬 번역 평가 담론 및 기준에 대한 포괄적 고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홍정민(동국대학교, 서울)

김경혜(동국대학교, 서울)

1. 서론

번역의 평가라는 문제는 객관적 기준, 신뢰성 있는 주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주제로 번역학 내에서 오랫동안 주요한 연구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홍정민, 2023). 특히, 문학을 비롯한 문화예술 텍스트와 같이 수용이 개인의 주관적 영역으로 인식되는 장르에서는 번역에 대한 평가가 더욱 다원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체계적인 담론과 객관적 기준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서도 관련 논의가 전무하다시피 한 뮤지컬 텍스트 번역에 대한 평가 담론 및 기준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홍정민, 2023 참고). 특히, 다음과 같이 분석 대상의 정교화와 연구 방법의 다각화를 통해 평가 관련 논의에서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대표성과 주관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우선, 분석 대상 측면에서 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과 주체를 정교하게 구분해 선정한다. 한국 뮤지컬 평론의 장은 제도권과 비제도권으로 나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FR-2022S1A5A8050581).

눌 수 있는데, 제도권 평론이 이루어지는 대표적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간지 내 평가 담론 및 기준은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바 있다(홍정민, 2023 참고). 이에 본 연구는 뮤지컬 평론의 또 다른 주요한 장인 비제도권, 이 가운데서도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온라인 뮤지컬 커뮤니티의 평가 담론 및 기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연구 방법 측면에서도 양적, 질적 연구를 다각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질적연구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MAXQDA를 사용해 다량의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범주화해 분석함으로써 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상술한 접근을 통해 본 연구는 온라인 뮤지컬 커뮤니티의 평가 담론 및 기준을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제도권 평론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한국 뮤지컬 산업 내 평가 담론 및 기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설득력 있는 단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뮤지컬 커뮤니티 내 번역 평가 담론에서는 주로 어떠한 주제가 논의되는가?
2. 온라인 뮤지컬 커뮤니티에서 고려되는 번역 평가 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떠한 번역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뮤지컬 번역 평가 담론 및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번역학 내에서 문화예술 텍스트 번역의 평가는 문학 번역에 주로 치중되어 왔으며 평가 및 절대적 기준 적용 가능성, 평가 주체와 기준의 객관성 등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성초림, 2013; 손지봉, 2006; 윤지관, 2013; 이상원, 2008; 이은숙, 2011; 이형진, 2008). 반면, 문학 외 문화예술 텍스트의 번역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 있다. 특히 뮤지컬 장르의 경우 상업예술로서 대중의 수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다 해외 작품을 한국인 배우가 한국어로 공연하는 라이선스 작품이 전체 시장 점유율의 60~70%를 차지하는 만큼 번역에 대한 평가가 작품의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물론, 여러 뮤지컬 번역 연구에서 직간접적으로 제시된 ‘좋은 번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인 평가 담론 및 기준에 대한 단서를 유추해 볼 수는 있다(이성은, 2013; 이지민, 2019a/b; 이지민과 정지윤, 2022; 홍정민, 2016, 2020, 2021, 2022; Kirk, 2008). 이들 연구를 종합하면 뮤지컬 번역에서는 ST의 언어와 비언어 기호를 그대로 정확하게 옮기는 ST 지향성보다는 목표 문화권의 언어적 관습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게 수정하는 TT 지향성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된다. 또, TT 지향성 안에는 멀티모달리티(multi-modality), 즉 언어와 비언어 기호 간 조화라는 공연 자체의 특성과 관객의 기대와 수요, 문화 및 사회적 배경 등 공연 외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대부분 뮤지컬 번역 평가 담론이나 기준을 연구의 일부로 또는 암시적, 산발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평가의 주체 역시 번역 연구자나 일부 현장 전문가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즉, 평가 담론 및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평가를 실제로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을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홍정민(2023)은 평가 담론 및 기준에 명시적으로 초점을 맞춘 연구로 한국 뮤지컬 산업에서 실제 제도권 평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일간지¹⁾ 속 평가 관련 표현들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 초점, 대상 및 방법적 측면에서 선행연구에 비해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평가 담론 및 기준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연구는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뮤지컬’과 ‘번역’을 키워드로 검색해 2020년 1월 초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3년 동안 생산된 일간지의 관련 기사를 추출한 뒤 전체 뮤지컬 관련 기사 대비 비중, 기사 내 비중, 세부 평가 기준 항목 및 각각의 비중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평가 관련 구문 및 표현에 대해서는 정성적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뮤지컬 번역이라는 주제를 다룬 기사는

1) 뮤지컬에서는 저널리즘을 통한 비평적 활동이 훨씬 강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평론은 보통 일간지, 웹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최승연, 2023, pp. 125-126, 130-131).

전체 뮤지컬 관련 기사 대비 5%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뮤지컬 번역에 초점을 둔 기사는 이 가운데서도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p. 395). 번역이라는 활동에 대한 제도권 평단의 관심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둘째,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세부 평가 기준 항목을 출현 빈도 순서로 나열하면 ‘원작의 효과’, ‘사회 및 문화적 배경’, ‘표현의 자연스러움’, ‘관객의 반응’, ‘공연성’, ‘원작의 충실한 재현’ 등 여섯 가지였다(pp. 395-396).²⁾ 특히, 이 가운데 TT 지향성에 해당하는 ‘원작의 효과’와 ‘사회 및 문화적 배경’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면서 이들 기준이 평가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됨을 시사했다. 반면 ST 지향성에 속하는 ‘원작의 충실한 재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아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뮤지컬 번역에서는 ST 지향성보다 TT 지향성이 훨씬 더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인식됨을 보여준다. 또, 이들 평가 기준 항목과 TT 지향성의 높은 비중은 앞서 소개한 뮤지컬 번역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번역학계와 평단이 이들 측면에 대한 견해를 암묵적으로나마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p. 404-405). 셋째, 뮤지컬 평단은 원작의 효과를 잘 살리고 한국의 사회 및 문화적 배경을 적절히 반영한 번역에 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었다. 특히 사회 및 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한국의 전반적 상황은 물론, 배우, 관객 등 한국 뮤지컬 산업만의 특수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번역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은 뮤지컬 번역이 언어, 멀티모달리티, 일반적 사회 및 문화적 맥락은 물론 산업적 이해까지 요구되는 매우 섬세한 작업임을 보여준다. 해당 연구는 한국 뮤지컬 산업에서 제도권 평론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일간지를 분석함으로써 평론의 실제 주체의 관점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뮤지컬 평가 담론 및 기준에 대한 좀 더 정확하고 일반화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한다(p. 405).

하지만, 이 역시 한국 뮤지컬 산업의 특징을 정교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론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장, 즉 비제도권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한국 뮤지컬 산업 내 번역 평가 주체로서 비제도권 평론 주체, 특히 이 가운데서도 온라인 커뮤니티의

2) 이들 여섯 가지 항목은 온라인 뮤지컬 커뮤니티 분석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표 7>에서 다시 정리한다.

중요성에 대해 상술한다.

2.2 뮤지컬 번역 평론 주체로서 비제도권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중요성

한국의 뮤지컬 평론 주체는 뮤지컬 애호가로서 공연계의 다양한 분야를 겸업하며 평론을 시작한 1세대에서 출발해 현재는 아카데미아와 저널리즘 양편에서 활약하는 2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을 제도권 평론가로 지칭할 수 있다(최승연, 2023, pp. 117). 하지만 최근에는 이들 외에 비제도권, 즉 서브컬처 신(sub-culture scene)에서 활동하는 주체들도 점차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최승연, 2023, pp. 117-118, 127). 서브컬처란 일반 팬들의 개인 SNS(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감상평), 디시인사이드 연극뮤지컬갤러리(연뮤갤) 팬덤의 미시적이며 집단적인 글쓰기, ‘뮤스트’, ‘황조교’ 등의 뮤지컬 큐레이팅, 뮤지컬 유튜버, 『CY Stage』와 같은 온라인 매거진, 뮤지컬 팟캐스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슈를 생산하는 영역이다(최승연, 2023, pp. 126-127). 여기에서는 여러 층위의 관객과 몇몇 전문가가 함께 활동하는데, 이들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빠르고 직접적인 정보들을 생산하면서 대중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강력하면서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최승연, 2023, pp. 126-127). 뮤지컬 평론가 최승연(2023, pp. 117-118, 128)은 N차 관극 문화를 바탕에 두고 K팝 팬덤의 생리를 공유하며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뮤지컬 팬덤의 영향력이 살아있는 한 뮤지컬에서 서브컬처 비평의 영향력은 더욱 강력하고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는 서브컬처에서 이루어지는 비제도권 비평과 제도권 비평을 위계가 아닌 다양성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비제도권 평론 주체의 관점을 검토하는 작업은 한국 뮤지컬 산업의 특수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번역 평가 담론 및 기준 파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이 활동하는 여러 매체 가운데서도 온라인 커뮤니티는 한국 뮤지컬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면서 뮤지컬 작품 전반을 둘러싼 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마니아 관객이 주도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한국 뮤지컬 산업이 지난 25년 동안 약 30배 이상 성장하면서 세계 4대 시장으로 도약한 데에는³⁾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었지만

항상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관객이다(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2025; 김영주, 2012; 이태훈, 2024). 뮤지컬이 대중예술 장르에 속하는 만큼 관객의 영향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특히 20-30대 여성 관객과 동일한 작품을 반복적으로 관람하는 마니아 관객⁴⁾이 티켓 구매의 상당 부분을 견인하면서 작품의 제작 방향, 배우 캐스팅 등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한국 뮤지컬의 “기이할 정도로 빠른” 성장을 이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영주, 2012; 홍정민, 2020, p. 233). 예를 들어, 인터파크가 2022년 3월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뮤지컬 티켓 예매자 가운데 같은 공연을 2회 이상 반복해 예매한 관객은 13%에 육박했으며, 특히 20-30대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72%에 달했다(임지우, 2022). 이러한 마니아 관객 편중 현상은 관광객이나 중장년층을 주요 관객층으로 하는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와는 상당히 다른, 한국 뮤지컬 산업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양상이다(지혜원, 2012). 제작사, 창작진 등 뮤지컬 업계와 관련 협회 역시 이들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국내 최대의 뮤지컬 시상식인 ‘한국 뮤지컬 어워즈’는 2017년 1회부터 한 해 동안 작품을 가장 많이 관람한 관객에게 ‘올해의 관객상’을 제정해 수여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수상자의 평균 관람 횟수는 112회에 달한다(김현식, 2025; 김현정, 2021; 신성아, 2022; 안시은, 2020; 이솔희, 2024; 장민수, 2023).

한국 뮤지컬 마니아 관객들의 영향력은 작품 관람을 위한 티켓 구매에만 머물지 않는다. 특정 작품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토대로 그 밖의 다양한 단계와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김영주, 2012). 예를 들어, 2000년 초연한 창작 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베르테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한국 최초의 자발적 창작 뮤지컬 서포터 집단이 탄생하는 계기가 된 작품으로, 관객들은 제작사, 창작진, 배우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며 2003년과 2004년에는 재공연을 위해 공연

3) 한국의 뮤지컬 시장은 2024년 말 기준 시장 규모가 약 4,651억원으로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배 이상 성장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브로드웨이, 영국의 웨스트엔드, 아시아의 일본에 이어 세계 4대 시장으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2025; 이태훈, 2024).

4) 이들 관객은 소위 ‘회전문 관객’ 또는 ‘N차 관람객’으로도 지칭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마니아 관객’으로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

투자사를 만들어 극단에 3억 원의 투자금을 내고 작품 기획과 홍보 마케팅에까지 참여하는 등 제작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김영주, 2012). 이러한 돈독한 관계가 관객과 제작사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어떠한 측면에서든 마니아 관객들은 작품 관람뿐 아니라 생산에서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뮤지컬 시상식의 심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 뮤지컬 어워즈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한 10배수의 후보 가운데 무대예술, 배우, 제작, 창작 등 뮤지컬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투표단 100명과 더불어 연간 다수의 작품을 관람한 뮤지컬 관객 및 공연 애호가로 구성된 관객 투표단 100명의 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하는데, 관객 투표단이 실제 관람한 작품 티켓이나 예매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한 후 선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마니아 관객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제9회 한국뮤지컬어워즈, 2025). 각 투표단의 가중치가 각각 70%, 30%이고 관객 투표단의 경우 배우 부문에 대한 투표권만 주어지지만, 공식적 평가 기준을 암묵적으로 반영하는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 뮤지컬 평가 담론과 기준에 관객들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시사한다. 미국 브로드웨이 최고 권위상인 토니상의 경우 투표 자격이 연극 및 뮤지컬 업계 및 협회 종사자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뮤지컬 산업 내 평가 담론 및 기준 설정에서 관객들은 매우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Tony Awards, 2025).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 뮤지컬 마니아 관객들이 단순히 작품의 관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및 평가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전반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매우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들 마니아 관객들이 활동을 벌이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핵심 매체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마니아 관객들은 한국 뮤지컬 산업 발전 초기 PC통신 기반 온라인 동호회를 시작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목소리를 내다가 2000년대부터는 인터넷으로 활동의 장을 옮겼다.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대중화되면서 이들 뮤지컬 커뮤니티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었으며 2000년대 초중반에는 제작사가 작품을 무대에 올릴 때마다 반응 점검을 위해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커뮤니티가 40여 곳에 달

했다(김영주, 2012). 이 과정에서 뮤지컬 평가 주체로서 관련 담론과 기준에 대한 마니아들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어 왔다. 실제로, 커뮤니티 상 후기가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일종의 권력으로서 작품에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고 반대로 공연 제작자나 창작자 측에서 후기에 대해 간섭을 하면서 갈등이 불거지는 사례도 발생했다(김영주, 2012). 이에 마니아 관객들이 솔직한 비평을 위해 카페에서 블로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트위터 등의 SNS 등으로 활동 공간을 옮기면서 현재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온라인 뮤지컬 커뮤니티,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의 서브컬처가 영향력 있는 비평 활동의 장으로 부상하고 있다(김영주, 2012; 최승연, 2023, pp. 117-118, 126-127).

온라인 커뮤니티 상 마니아 관객들의 활동은 번역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다양한 해외 대작을 접해 온 마니아 관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연극/뮤지컬 갤러리를 통해 작품의 원어 대사와 가사를 번역해 올리거나 번역의 품질에 대한 토론과 비판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기 때문이다(박혜성, 2017, p. 63).⁵⁾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 뮤지컬 번역 비평 활동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천적이고 역동적인 성격을 지님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소개한 온라인 뮤지컬 커뮤니티 상 마니아 관객들의 비평 및 번역 활동과 그 영향력은 이들을 단순한 애호가가가 아니라 비평과 번역 두 가지 측면 모두의 전문가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그리고 뮤지컬 전반에 대한 평가 담론 및 기준을 직간접적으로 형성하고 반영하는 매체로서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고찰이 현재 한국에서 작동하는 뮤지컬 번역 평가 담론 및 기준을 보다 정확하고 정교하게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임을 시사한다.

5) 온라인 커뮤니티 외에도 SNS와 유튜브를 통해 해외 및 국내 뮤지컬 작품의 넘버 및 가사를 번역하고 커버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안세영, 2023; 이솔희, 2023). 예를 들어, ‘오로시’는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 등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로 한국 뮤지컬 넘버 가사를 영어로 번안하고 커버 영상을 제작해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총 6명의 운영진과 5개 팀이 2021년부터 지금까지 <테스노트>, <프랑켄슈타인>, <웃는 남자>의 영어 커버 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안세영, 2023).

3. 연구 방법

3.1 분석 대상 및 추출 방법

본 연구는 온라인 뮤지컬 커뮤니티 상 마니아 관객들의 번역 평가 담론 및 기준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 유머, 이슈, 정보, 연예, 스포츠, 웹툰, 게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2024년 11월 기준 국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theqoo)⁶⁾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커뮤니티의 연극/뮤지컬 게시판에서 ‘번역’과 ‘번안’이라는 키워드가 제목 또는 내용에 포함된 게시글과 댓글을 검색한 결과, 2017년 4월1일부터 2024년 10월31일까지 9년 7개월 동안 생산된 1,735개의 게시글과 댓글을 추출할 수 있었다. 분석 대상 단어는 23,138개였으며, 추출한 자료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에 저장하였다. 더쿠 커뮤니티의 경우 익명성 보장을 위해 회원의 닉네임이 ‘무명의 더쿠’, 원 게시자의 댓글은 ‘원덜’이라고 표시되는데, 이러한 닉네임과 광고 등 본 연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삭제하였다.

원 게시글의 내용에 다른 사용자들의 반응과 그 역동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각 게시글에는 번호를 부여하였다. 각 게시글에 달린 댓글도 분석에 포함하였는데, 댓글을 포함한 이유는 댓글 자체가 온라인에서 사용자들 간의 의견을 개진하고 때로는 동의 및 반박하는 활발한 대화 공간이자 연대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종종 원 게시글에서 다른 사용자들의 번역 평가를 공유하도록 질문을 올리기도 하고, 원 게시글의 번역 평가에 관해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하며, 다른 의견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댓글 역시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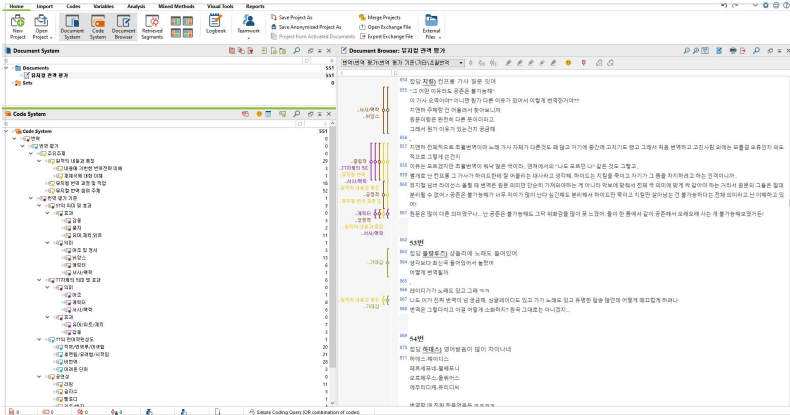
6) 커뮤니티 활성화, 집중도, 트래픽 등 세 개 지표를 기준으로 커뮤니티 순위 정보를 제공하는 ‘오늘의 베스트’(https://www.todaybeststory.com/ranking_monthly.html) 기준. 1위인 디시인사이드는 해당 키워드로 추출한 게시글이 30개에 못 미쳤고 2위인 FM코리아는 스포츠, 게임 등을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3.2 분류 및 분석 방법

추출한 자료는 질적 연구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MAXQDA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다량의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질적 분석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다양한 질적 분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NVivo와 MAXQDA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보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인터뷰, 설문, 오디오, 비디오 등의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면서도 코드를 부여하고, 부여된 코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범주화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보조 도구는 연구 대상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패턴을 쉽게 시각적,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데, MAXQDA에서는 수집된 데이터 분석 시 연구 질문과 관련한 해당 부분에 코드를 부여한 뒤 부여한 코드를 성격별, 주제별 등으로 결합해 상위 코드를 부여해 몇 개의 하위 단계를 하나의 상위 범주 소속으로 묶을 수 있다. 특히 MAXQDA는 직관적이고 한글 처리가 가능해 비교적 사용이 용이한 질적 연구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장점이 본 연구의 접근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분석도구로 선정하였다. 분류한 코드와 자료는 MAXQDA 파일 형태 또는 엑셀 파일의 형태로도 공유가 가능하여 협업 시 유용한데, 이는 두 명 이상의 연구자가 동일한 자료를 각각 분석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 분석을 통한 주관 개입 문제를 해소하고 연구과정의 투명성 확보에도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주관 개입을 줄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두 명의 연구자가 추출 자료를 각각 분석한 뒤 차이가 있는 경우 상호 논의를 통해 코드를 수정, 변경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연구자 두 명이 모두 동의한 최종 코드 분류를 바탕으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MAXQDA 인터페이스의 좌측에는 질적 자료 분석을 하며 부여한 코드와 그 관계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시각화 화면이, 우측에는 현재 분석 중인 자료가 제시된다.

그림 1
MAXQDA 인터페이스



먼저 추출 자료를 MAXQDA 프로그램에 탑재한 뒤, 실제 프로그램 사용에 앞서 연구자 각각이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자료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시에와 새년(Hsieh & Shannon, 2005)이 설명한 전통적인 분석 방식을 사용해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연구 질문과 관련해 유의미한 부분에 새로운 코드를 생성 및 부여하였다. 부여한 하위 코드는 유사 그룹 별로 모은 후 상위 항목을 생성해 포함하는 방식으로 상위그룹화하고 각 개별 코드의 연결고리를 생성하였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사용자들은 대사, 가사와 음악, 동작, 무대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형성하는 뮤지컬 번역 작업의 멀티모달적 특성 또는 원작자, 제작사의 영향 등에 따른 번역가의 자유 제약과 같은 뮤지컬 번역 과정의 집단적 특성, 원작의 줄거리 또는 캐릭터 등에 초점을 맞춰 번역을 논의하거나 평가하고 있었다. 또, 번역가 및 제작사에 관한 언급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경우 각각 ‘원작의 내용과 특징’, ‘뮤지컬 번역 과정 및 작업’, ‘뮤지컬 번역 참여 주체’라는 코드를 생성해 수합한 다음 평가 담론 내 ‘주요 주제’라는 상위 그룹으로 범주화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번역 뮤지컬에서 글자 수가 너무 많아 멜로디와 어울리지 않는다던가 라임을 맞추지 못했거나, 또는 한글 라임이 영어 라임만큼 완벽해 긍정적인 경우 모두 ‘공명성’이라는 상위 코드로 포함하였

다.

온라인 커뮤니티 언어 특성상 축약어나 이모티콘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특히 온라인 소통에 있어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도 언어만큼이나 감정전달과 유대감 형성에 역할을 한다는 점(Dresner & Herring, 2010; Konrad et al., 2020; Pérez-Sabater, 2021)에 비추어 삭제하지 않고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하나의 문장에서 번역에 관한 여러 가지를 논의하는 경우 두 개 이상의 코드를 부여하였다. 일례로, 위 <그림 1>의 855번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번역과 관련한 언급인데 여기서는 원문의 ‘ST의 의미 및 효과’, 특히 원문의 의미 중 뉘앙스뿐 아니라 서사 및 맥락에 관한 기술이므로 ST의 의미 및 효과 - 의미 서사/맥락과 뉘앙스 등 두 개 이상의 코드를 부여하였다. 마찬가지로 857-859번은 원문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지속적 수정이 이루어지는 뮤지컬 과정 및 작업에 대한 이해도 드러내고 있으며 ‘TT 자체의 의미 및 효과’ 가운데 TT의 의미 중 서사 및 맥락에 관한 부분도 언급되는 데다 긍/부정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총 다섯 개의 코드가 부여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성된 코드 분류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분류표(상위그룹)

▼ 번역	0
▼ 번역 평가	0
> 주요주제	103
> 번역 평가 기준	177
> 번역평가판단	184

그림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분류표(하위그룹)

번역	0
번역 평가	0
주요주제	0
원작의 내용과 특징	29
내용에 기반한 번역전략 이해	3
장해성에 대한 이해	1
유지형 번역 과정 및 작업	18
유지형 번역 참여 주제	52
번역 평가 기준	1
ST의 의미 및 효과	3
효과	0
갈등	3
물자	2
유머, 재치, 위트	11
의미	1
어조 및 경서	3
원작성	13
캐릭터	6
서사/맥락	1
TT자체의 의미 및 효과	6
의미	0
어조	1
캐릭터	8
서사/맥락	7
효과	6
유머/위트/재치	7
갈등	3
TT의 언어적상호도	1
직역/번역후/어색함	20
재현성/유려함/시적성	21
이벤트	28
아래준 단어	2
중언성	0
권임	11
금지수	3
영도디	1
인물/장자	4
분류	1
번역평가판단	97
종합적	0
부정적	7
긍정적	58
결정적	119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상 번역에 관한 질문이나 댓글에도 번역 이외의 내용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1,735개 게시글과 댓글을 분석하고 코드를 부여한 결과, 번역을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번역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소통을 하는 등 번역에 초점을 맞춘 코드의 수는 총 280건(7)으로 확인되었다. 총 280건은 크게 라이선스 뮤지컬 번역 평가에서 언급되는 ‘주요 주제’(103건, 36.6%)와 ‘평가 기준’(177건, 63.4%)으로 나뉘었다. ‘주요 주제’는 뮤지컬 번역 참여 주제, 원작의 내용과 특징, 뮤지컬 번역 과정 및 작업으

7) 실제 뮤지컬 번역에 초점을 맞춘 게시글 및 댓글의 수는 189개이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의 게시글 및 댓글이라도 ‘주요 주제’와 ‘번역 평가 기준’이 동시에 언급된 경우에는 두 개의 코드를 부여한 관계로 코드의 수는 총 280건이 도출되었으며, 각각이 서로 다른 번역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개별 단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코드의 수인 280건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했음을 밝혀둔다.

로, ‘번역 평가 기준’은 ST의 의미 및 효과, TT 자체의 의미 및 효과, TT의 언어적 완성도, 공연성 등으로 세부 분류할 수 있었다. 이는 곧 온라인 커뮤니티 관객들은 번역 평가 논의에서 번역을 수행하는 제작사 및 번역가, 원문의 내용과 특징, 번역 과정 및 작업 등을 주로 언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평가 기준으로는 ST의 의미 및 효과, TT 자체의 의미 및 효과, TT의 언어적 완성도, 공연성 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분석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논의하겠다.

4. 분석 결과

4.1 온라인 커뮤니티 내 뮤지컬 번역 평가 담론의 주요 주제

자료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추출된 전체 게시글 및 댓글 1,735개 가운데 번역에 초점을 맞춘 것은 총 189개로 10.9%를 차지했다. 뮤지컬 번역에 대한 일간지 기사 가운데 번역에 초점을 맞춘 기사 비중이 5.5%였음을 감안할 때(홍정민, 2023, p 395) 커뮤니티 관객들의 번역에 대한 관심이 평단에 비해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성적 검토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관객들의 번역 평가 담론에서는 뮤지컬 번역 참여 주체(제작사, 번역자), 원작의 내용과 특징(줄거리, 캐릭터, 언어 및 비언어 기호의 특성)에서 뮤지컬 번역 과정 및 작업(다양한 언어 및 비언어 기호 간 조화가 중요한 멀티모달 텍스트 번역, 다수의 주체가 참여하는 집단 작업) 등 뮤지컬 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각적인 측면들이 주요 주제로 논의되고 있었으며 이들 주제에 대한 지식 및 이해도 매우 광범위하고 전문적이었다. 또,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해당 작품을 누가 제작하고 번역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가장 자주 등장했으며(52건, 50.5%) 원작의 내용이나 장르적 특성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졌다(33건, 32%). 뮤지컬 번역 과정 및 작업 역시 주요 주제 중 하나였다(18건, 17.5%).

우선, 아래 게시글과 댓글 예시에서 볼 수 있듯 온라인 커뮤니티 관객들

은 뮤지컬 번역 평가 논의에서 작품의 제작사와 번역가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폭 넓고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를 개진하고 있었다. 특히, 번역가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대표 번역가로 이미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황석희 번역가뿐 아니라 이지혜 번역가와 같이 뮤지컬 작곡가이면서 번역을 겸업하는 주체에 대한 언급, 나아가 이들 번역가가 참여했던 작품에 대한 언급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객들의 뮤지컬 산업에 대한 지식이 매우 심층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정 제작사와 번역가가 번역에 대한 평가의 근거로 제시되는 경우가 눈에 띄었는데, 이는 관객들에게 소구하는 효과적인 번역을 위해서는 제작사가 번역가, 번역 과정 등을 좀 더 체계적, 일관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필요성을, 또 기존에는 뮤지컬 번역이라는 집단적 작업 과정에서 영향력이 없는 비가시적 존재에 머물렀던 번역가의 가시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뮤지컬 번역 참여 주체

<제작사>

번역은 오디가 제일 잘함

오디가 번역 하나는 기똥차게 해온다

오디가 진짜 번역은 잘해 초월 번역

쇼노트 번안 진짜 잘하는 듯

물론 이엠펜이 번역이 구려서일수도 있음

<번역가>

영화 쪽에선 워낙 네임드여도 뮤지컬 넘버는 영화 대사랑 성격이 좀 다르니까 썸씽로튼 들어간다 했을 땐 좀 반신반의했는데... 보고 나서 믿음이 부족했던 저를 용서하십시오 스생님orz 이래됨

썸씽로튼 갯석희 번역

황석희 번역 들어온거보니 대사 가사 싹 손보려나보다

번역가 덕질도 했지ㅋㅋㅋㅋ진짜 번역 개잘함ㅋㅋ

내한 때도 이 번역가 분이셔서 이 점에 영업당해서 갔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진짜 만족도 높은 관객이었어

이지혜 작곡가가 ㅋㅋㅋ 라만차도 이분이 번역
아 글고 한국어 버전 번역가가 박창학님이더라?

둘째, 온라인 커뮤니티 관객들은 원작의 내용과 캐릭터부터 대사의 특징에 대한 의견도 자주 개진하였는데, ST의 전반적 특징에 대한 지식과 이해 역시 매우 정확하고 심층적이었다. 이 역시 이들을 신뢰할만한 평가 주체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원작의 내용과 특징**

난 할배 노망나기 전 과거의 영광에 멈춰있는 집안이라 그 고여서 멈춰있는 시간을 보여주려 단어부터 퀘퀘한 고릿적 말투를 쓴 거라고 생각했어

하데스도 은유나 함축적인 대사가 많아서 서키씨가 어떻게 번역했는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됨

공존은 불가능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싶긴 해도 분리해서 하이드만 죽이고 지킬만 살아남는 건 불가능하다는 전체 의미라고 난 이해하고 있어!

나도 이거 진짜 번역이 넘 궁금해. 싱글레이디도 있고 가가 노래도 있고 유명한 팝송 많던데 어떻게 매끄럽게 하려나

잡담 밑에 초월번역 글 보고 생각난 내가 좋아하는 싸 가사 번역

And now our bodies are the guilty ones

이 가사

한 점의 죄옷을 입은 몸?

이렇게 번역한거 진짜 천재같아ㅠㅠㅠㅠㅠㅠ?"

스프링 번안 진짜 천재적이야.. 난 아빌립 ㅠㅠ 천국같은 사랑 햇살같은 용서... 원문은 All will be forgiven There is love in heaven..

셋째, 관객들은 뮤지컬 번역 과정 및 작업에 대해서도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뮤지컬 번역은 가사 및 대사라는 언어 기호뿐 아니라 음악, 동작, 무대장치, 소품 등의 다양한 비언어 기호가 개입되는 멀티모달 텍스트 번역이며 번역자뿐 아니라 연출자, 작사가, 작곡가, 음악감독, 안무가, 출연진 등 다수의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작업으로 이들 사이의 다양한 논의와 교

섭을 통해 최종 결과물이 생산된다(이지민, 2017; 홍정민, 2016; Kirk 2008; Sorby, 2014). 이와 함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예술인 만큼 공연 중 관객의 반응을 반영하여 또는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재공연을 위해 수정되기도 하며, 멀티캐스팅(multi-casting)⁸⁾의 경우 대사나 가사가 배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또, 계약 방식에 따라 번역된 텍스트를 역번역한 뒤 판권을 가진 원작자(original producer)의 확인과 허락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송주희, 2015; 이지민, 2017; 홍정민, 2016, 2017; Kirk, 2008; Sorby, 2014). 아래 예시는 관객들이 이러한 특징을 정확히 인지하면서 번역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악보에 맞춰서”는 음악 등 비언어 기호와의 조화를 고려해야 하는 뮤지컬 번역의 멀티모달적 특성을 언급한 것이며, “오리지널팀에 컨펌 받는 과정”, “원작자가 못 바꾸게 한다고” 등은 원작자의 허락을 취득하기 위한 역번역을 의미한다. “배우마다 다르게 하는 경우”는 멀티캐스팅에 따른 대사 및 가사의 차별화를 나타내며, “시즌마다 대본 바뀌고 번역을 새로 하기도 하는데”, “이번 라센이나 번역 방향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 등은 재공연에 따른 번역 수정과 관련한 내용이다. 특히, “초연 때 잉스러웠던 번역 몇개 고쳐왔다...좀 더 자연스럽고 한번에 와닿게 바뀐 듯”에서 볼 수 있듯 온라인 커뮤니티 관객들은 재공연에 따른 수정 양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들의 번역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식수준, 나아가 평론 주체로서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뮤지컬 번역 과정 및 작업

<멀티모달적 특성>

뮤지컬 넘버 라이선스 올릴 때 번역은 원문 의미만 단순히 가져와야 하는 게 아니라 악보에 맞춰서 전체 극 의미에 맞게 짝 같아야 하는 거라서 원문의 그들은 절대 분리될 수 없어

<역번역>

8) 브로드웨이 등 서구에서는 하나의 배역을 한 명의 배우가 맡아 모든 회차를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한국 뮤지컬 산업에서는 하나의 배역에 여러 명의 배우를 캐스팅(더블 트리플 쿼드러플 캐스팅)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지혜원, 2012, p. 127).

나중에 번역가가 밝힌 후일담 보니까 번역 오리지널팀에 컨펌 받는 과정에서 초안 컷 당하고 수정된 게 많은가 보더라고...
저거 원작자가 못 바꾸게 한다고 했었음

<재공연에 따른 수정·멀티캐스팅>

시즌마다 대본 바꾸고 번역을 새로 하기도 하는데 왜 난리야
시즌마다 대본 바꾸고 대사 추가되고 빠지고 그 와중에도 누구는 초연대로 치고 누구는 재연대로 치고 악보도 배우마다 다르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맨날 뭐 틀렸니 맞니 이거 가지고 난리야.
약간 이번 라센이나 번역 방향은 좀 다를 수도 있단 생각?

초연 때 잉스러웠던 번역 몇개 고쳐왔다!!!

가끔 때찌->따끔한 코치

파리직구->메이드인파리스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한번에 와닿게 바뀐 듯

또, 작품별 대사 및 가사에 대해 각자의 번역 대안을 제시하고 활발히 토론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래 예시에서 볼 수 있듯 관객들은 특정한 가사에 대해 본인의 번역을 제안하기도 하고(“밥맛보단 극혐이 더 낫지 않나”,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도”)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도 원작에 대한 지식(“What is this feeling”, “Couldn’t be happier”, “loathing”, “원곡은 그냥...”, “원곡 그대로도 ...”)뿐 아니라 멀티모달 텍스트 번역(“모음 구조”, “부르기에도”), 지속적 수정(“라센 초연”, “이번 삼연”, “고친 거 맘에 드는데”, “또 이상하게 고쳐서”) 등 뮤지컬 번역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종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즉, 온라인 뮤지컬 커뮤니티 내 마니아 관객들을 이제 적극성과 전문성을 지닌 신뢰성 있는 평가 주체로 인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아래 예시는 특정 작품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이 좀 더 자세하게 번역에 관해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이다.

◆ 번역 대안 제시 및 토론

<위키드>

나 예전에 내한 때만 봐서 한국 거는 한 번도 못 봤거든

근데 유튜브에서 몇 개 조각 영상 봤는데 what is this feeling에서 밥맛으로 번역한 거 보고 조금 깨긴 했는데 직접 가서 현장 가면 좀 다를까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밥맛보단 극혐이 더 낫지 않나

↳ 어린이도 많이 보는 뮤지컬인데 극혐 극혐 극혐 하는 건 좀 별로일

것 같은데...

↳ 근데 극혐은 보편적으로 무슨 뜻인지 다 아는 단어는 아닐 것 같아서... 난 밥맛송 현장에서 들었을 때 재미있었어

↳ 애초에 라센 초연때 극혐이란 단어가 없지 않았을까

↳ 전체적으로 번안 띄우기라고 느낀 사람들 많아 나도 번안 잘됐다 생각되는 넘버 몇개 없더라고... 위키드 원넘버가 워낙 말장난도 많고 재치있는 가사다보니깐 번안하는데 어려움 있는거 이해는 하는데..난 개인적으로 불호였어

↳ 대놓고 어색함

한번 싹 손 봤으면 좋겠음

↳ 더 없이 행복해~ 여기도 약간 어색해 couldn't be happier 를 더 잘 표현하는 무언가가 없나ㅠ

↳ 노래 가사로 극혐은 모음 구조가 듣기에도 안 편해 ㅋㅋㅋㅋ 부르기에도 밥맛이 나올 듯

↳ 극혐보단 밥맛이 낫지... 것보다 위키드는 영어단어 그냥 통으로 쓰는게 더 별로야 ㅋㅋ

사악한 저 위키드~~~ 도 그렇고 ㅇㅇ 그래서 이번 삼연 나는야 센터 멘탈맨~ 가사를 마음이 따뜻한 남자~ 이런식으로 고치거 맘에 드는 데... 왜 노원은 또 이상하게 고쳐서 --

↳ 극혐이 더 이상... 난 언리미티드가 켈 별로

↳ 나도 위킨 번역 전체적으로 맘에 썩 들진 않는데 밥맛송은

개인적으로 좋았음 ㅋㅋㅋㅋ

↳ 근데 또 딱히 loathing을 대체할 단어가 없지 않아..? 난 밥맛송은 듣고 은근 잘 번역했다 생각했는데ㅋㅋㅋㅋ 춤을추자랑 밥맛송은 번역 잘 된 편임

<킹키부츠>

아무리 양심없는 몸뚱이도 올라탈수 있게~

아무리 양심없는 몸뚱이도 올라탈 수 있게< 이 번역 너무웃겨ㅋㅋㅋ 원곡은 그냥 돈조차도 부러뜨리지 못하게 ~ 이런 가사던데 진짜 센스있게 잘 맞춘듯ㅋㅋㅋㅋ

↳ ㅋㅋㅋㅋㅋ진짜 웃겨 항상 웃긴 장면 ㅠㅠㅠㅠ조지아저씨 보고싶다

↳ 난 웃기려고 한 건 알겠고 나도 웃기는 했지만 보면 볼수록 '양심없는 몸뚱이' 단어가 묘하게 걸려서... 원곡 그대로도 우리 말로는 좀 이상할 것 같긴 해서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는 없었을까 싶었음

↳ 마지막에 스케치북으로 얼굴 가린 거 마적ㅋㅋㅋㅋㅋㅋ

↳ 아 그리고보니 그렇게 생각해본적은 없었넹.... 근데 원곡 뉘앙스부터 그래서 어렵긴하다ㅠ

↳ 뭐 나도 웃음을 특별히 막 악의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근데 그냥 회진 돌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기가 묘하게 걸리더라고 근데 뭐 또 그렇다고 대체할 만한 뽀족한 단어가 생각나는 것도 아니긴

해서 ㅋㅋㅋ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도~ 뭐 이런 식이면 또 느낌이 안 낫겠지? 암튼 참 어려운 것 같아 허허

이처럼 온라인 커뮤니티 관객들의 뮤지컬 평가 담론 내 주요 주제를 살펴본 결과, 이들은 특정 작품의 제작사와 번역가가 누구이고 이들이 수행한 번역 결과물이 어떠한지, 원작의 줄거리, 캐릭터 등의 내용이나 장르적 특성이 어떠한지 이러한 측면이 번역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멀티모달 텍스트이자 공동작업으로서 뮤지컬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 및 작업이 결과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등 뮤지컬 번역에 영향을 주는 다각적인 측면들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었으며, 이들 주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 역시 매우 방대하고 전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순한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본인의 번역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 뮤지컬 평가 담론의 전문성 및 심층성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뮤지컬 번역 평가 주체로서 비제도권 평단의 신뢰성과 파급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관객들이 번역 평가 시 제시하는 세부 기준 항목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실제 평가 사례를 소개하도록 한다.

4.2 온라인 커뮤니티 내 뮤지컬 번역 평가 기준 및 실제 평가 사례

커뮤니티 게시글과 댓글에서 자주 사용되는 구문 및 표현을 유사한 성격 별로 분류한 결과, 공통적으로 ‘ST의 의미 및 효과’(의미(어조, 정서, 뉘앙스, 캐릭터, 서사/맥락), 효과(유머/재치/위트, 풍자, 감동)), ‘TT 자체의 의미 및 효과’(의미(어조, 캐릭터, 서사/맥락), 효과(유머/재치/위트, 감동)), ‘TT의 언어적 완성도’(직역/번역투/어색함, 세련됨/유려함/시적임, 비번역, 어려운 단어), ‘공연성’(라인, 글자 수, 멜로디, 리듬/박자, 발음) 등 네 가지 평가 기준 항목이 도출되었다. 각각의 항목은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설명 없이 평가만 제시한 경우는 ‘기타’로 분류했다.

표 1
온라인 커뮤니티 관객의 뮤지컬 번역 평가 기준

평가 기준	정의	세부 항목	
ST의 의미 및 효과	ST의 언어 및 비언어 기호 형태는 달라지더라도 의미나 효과가 등가를 이룸	의미	어조/정서
			뉘앙스
			캐릭터
			서사/맥락
		효과	유머/위트/재치
			감동 풍자
TT 자체의 의미 및 효과	ST와는 다른 TT 자체의 의미나 효과가 발생	의미	어조
			캐릭터
			서사/맥락
		효과	유머/위트/재치 감동
TT의 언어적 완성도	언어 기호가 TT의 사용 관습에 적절함	지역/번역투/어색함	
		세련됨/유려함/시적임	
		비번역	
		어려운 단어	
공연성	TT의 언어 및 비언어 기호가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룸	라임	
		글자 수	
		멜로디	
		리듬/박자	
		발음	
기타	별도의 설명 없음		

우선, ‘ST의 의미 및 효과’는 아래 예시에서 볼 수 있듯 ST의 어조, 정서, 뉘앙스, 캐릭터 등의 의미나 유머, 재치, 감동 등의 효과가 등가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즉, 관객들은 원작의 의미나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이들이 원작의 의도대로 정확히 보존되었는지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표 2
ST의 의미 및 효과를 언급한 게시글 및 댓글

평가 기준	세부 항목	예시
ST의 의미	어조	“니가 (가짜로 얘기했던) 나무를 실제로 봤으면 좋겠어서”라고 받은 비꼬는 느낌이 있었는데, 한국어로는 뭔가 되게 착하게 용서하며 이걸 보고 뿌듯해 하렴 이런 느낌의 번역이라 아쉬웠어
	정서	원곡 분위기도 적절하게 잘 살림
	뉘앙스	특히 리볼팅 넘버 1111 미라클에서 우리 엄마는 내가 짱이래로 번역한 건 <u>기적 뉘앙스 사라진 건</u> 아쉬워
ST의 효과	유머/재치/위트	위키드 원 넘버가 워낙 말장난도 많고 재치있는 가사다보니까 <u>번안하는데 어려움 있는 거 이해는 하는데 그 유머 부분들도 영어로 말장난하는 거 그런 거 한국 스타깝게 잘 바꿨다고</u>
	감동	저 번역이 너무 거슬려서인지 개인적으로는 유월비파운드에 대한 <u>감동이 오히려 좀 축소된 느낌이었음</u>
	풍자	미국문화랑 종교 풍자라서 한국어로 번안하기 힘들 것 같긴 함

둘째, ‘TT 자체의 의미 및 효과’는 ST에는 없는 새로운 의미와 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ST와 상관없이 TT 자체가 작품적으로 완성도를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관객들이 번역에 대한 높은 인식과 관심을 바탕으로 ST와 TT를 좀 더 정교하게 비교하여 작품의 의미와 효과를 파악하고 있음을, 또 ST의 가치와는 별도로 TT 자체가 독립적 완성도를 지니는 것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서사를 보완한다’, ‘원작보다 낫다’ 등의 구문에서 알 수 있듯 TT 자체의 완성도를 달성하는 데 있어 번역의 적극적 역할을 인정할 뿐 아니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또, 해당 기준은 ‘초월번역’이라는 표현과 자주 사용되고 있어 뮤지컬 관객들이 인식하는 ‘초월번역’에 ‘ST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TT가 ST와는 달라지더라도 그 가치를 넘어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⁹⁾

9) ‘초월번역’이라는 용어가 현재 언론과 대중 사이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그 정의와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적 고찰과 일관된 함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인터넷 뉴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2011년 초부터 2024년 말까지 등

표 3

TT 자체의 의미 및 효과를 언급한 게시물 및 댓글

평가 기준	세부 항목	예시
TT 자체의 의미	어조	영알못인데 썬썬로튼 후사평가사말이야 빈안가사는 너 싫어 꺼져 짜증나!!!!이런 식이잖아
	캐릭터	별개로 난 키프롱 그 가사가 하이드한테 잘 어울리는 대사라고 생각해. 하이드는 지킬을 죽이고 자기가 그 몸을 차지하려고 하는 인격이니까..
	서사/ 맥락	그 해석할 거리를 잘 번역된 가사가 주고 있음 즉, 서사가 비어 있는데 그걸 관객이 원하는 대로 채울 재료를 준 거지 초월번역 진짜...원 가사하고 완전 다른 뜻인데 극중에서 잘 어울려서 흐름을 잘 타는 것도 신기하고 드쿨 러빙유 같은 넘버는 진짜 초월 번역 수준이고....서사 좀 아쉬운 부분을 가사들이 채워준다는 느낌이거든
TT 자체의 효과	유머/ 위트/ 재치	적절한 개그포인트도 잘 넣은 것 같고 번역도 꽤 잘했다고 느껴서 가사에 '오빠' 나왔을 때 당황하긴 했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냥 개그 포인트로 느껴졌어 ㅋㅋ
	감동	번역을 겁나 잘했음 난 솔직히 드쿨 과몰입하게 된거에 가사 영향이 쥬 커... 맨날 회전돌면서 가사 보고 또 깨달으면서 머리깎 ㅠㅠㅠㅠㅠㅠ

셋째, ‘TT의 언어적 완성도’는 직역, 번역투 등에 따른 어색함, 세련되거나 유려하거나 시적인 표현 사용, 어려운 단어 사용, 비번역 등에 대한 것으

장한 ‘초월번역’의 개념적 정의와 특성을 최초로 종합해 정리한 학위논문 ‘초월번역의 특성: 언론과 대중의 인식을 중심으로’(전민경, 2025)에 따르면 영화, 게임,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에서 ‘초월번역’은 ST가 훼손되는 것은 기피하지만 ST와 의미는 달라지더라도 과감하고 창조적인 번역을 통해 원문의 의도나 뉘앙스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원문보다 뛰어나다는 긍정적 의미뿐만 아니라 원문에서 벗어났다는 부정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뮤지컬 장르에서는 대체로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대체로 본 연구 대상인 온라인 뮤지컬 커뮤니티에 대한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초월번역’의 개념적 정의와 특성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인식에 일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로 언어 기호가 TT의 사용 관습에 적절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관객들 역시 평단과 동일하게 TT의 대사와 가사가 그 자체로 얼마나 완전한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어로서 자연스러운 것 외에 유려하거나 시적인 번역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은 번역이 단순히 언어적으로 어색하지 않은 등가를 찾는 것뿐 아니라 TT 자체로 미학적 가치가 있는 텍스트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 ST를 번역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유지한 ‘비번역’에 대한 언급 역시 자주 발견되었는데,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 역시 한국어로서 TT 자체의 독립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평가 기준은 앞서 도출된 ‘TT 자체의 의미 및 효과’와 함께 라이선스 뮤지컬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해외로부터 수입된, 일부 부유층만 향유할 수 있는 고급문화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따라서 원작은 훼손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며 번역 역시 외국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원작을 가급적 보존하는 것이 미덕으로 간주되었다(홍정민, 2024, p. 149). 하지만 이제는 뮤지컬이 대중적으로 널리 소비되는 접근성 높은 장르로 자리 잡은 만큼 대사와 가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현지화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TT의 언어적 완성도를 언급한 게시글 및 댓글

평가 기준	세부 항목	예시
TT의 언어적 완성도	직역/번역투/어색함	너무 직역이라고 해야 되나 (직역) 요새 레미 빠져서 듣는데 번역 왜케 어색하냐 팝송 다 번역해서 부르는데 생각 외로 자연스러웠오!!(어색함) 대사가 엄청 번역투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해럴드 역할이 대사칠 때 문가 조금씩 어색했어 그리고 너무 한국인데 필라델피아 등의 외국 배경이 계속 등장하니 까 몰입이 안돼가지공 원래 수입극이 보통 이런 느낌인가? (번역투, 어색함)
	세련됨/유	어휘를 적절히 잘 써서 문장이 유려하거나 고급스럽게 느

려함/ 시적임	끼치고... 시적이고 유려하다는 느낌임 드쿨 진짜 초월번역,,,가사가 다 시적인데 또 와닿아..
비번역	영어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u>부자연스럽고 귀에 쑥쑥 안 들어옴</u> <u>영어로 처리된 게 나한테 너무 붕 떠서</u> 하지만 <u>암커밍을 꼭 암커밍 그대로 가져와야 했을까?...</u> 딱 맞는 말을 찾기 힘들었나? 그래도 그거 찾으라고 번역가를 고용하는 것이 아닌지...? What's the buzz 나 I have to know, why should I die, king of jews 였나? 무튼 <u>작중 꽤 중요한 대사들도 영어로 처리된 게 나한테 너무 붕떠서</u> ㅋㅋㅋ
어려운 단어	그리고 <u>알아듣기 어려운 단어들</u> 이 가끔 들어있기도 하구 그래도 <u>사자성어</u> 너무 많아

관객들은 TT의 언어 및 비언어 기호가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공연성’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이는 관객들이 번역에서 언어적 측면뿐 아니라 뮤지컬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호 간 상호작용까지 감안하여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라임, 글자 수, 멜로디 등에 대한 언급이 자주 발견되어 이들이 특히 언어 기호와 음악 기호 간 조화를 매우 중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공연성을 언급한 게시물 및 댓글

평가 기준	세부 항목	예시
공연성	라임	뉴시즈 초월번역에 <u>라임도</u> 맞추고 진짜 잘함
	글자 수	<u>멜로디는 한정되어 있는데 글이 다닥다닥 들어가 있는</u> 느낌 <u>음에 구겨넣은 가사도 많아서 안 들리는 것도</u> 많고
	멜로디	조금 멜로디랑 어울리게 부드럽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
	리듬/박자	번역 아쉬운 부분 좀 있고 <u>리듬감도 안 맞는 부분들</u> 있음
	발음	가사는 진짜 <u>양상블까지 같이 문제인지 거의 안들리다시 피하고</u>

위의 표를 통해 대표적 예시를 제시하였지만, 알아두어야 할 점은 관객들이 뮤지컬 번역 평가에서 단 한 가지 기준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자주 발견된다는 점이다. 아래 예시는 <하데스 타운>의 번역과 관련하여 원문 속 'lyre'와 'liar'의 발음 유사성에서 발생하는 '라임'과 의미를 통해 전달되는 유머/재치/위트를 번역 문에서도 살렸는가에 관한 게시글과 댓글로, 본 연구에서 분류한 평가 기준 중 '공연성'의 '라임'과 'ST의 의미 및 효과'의 '유머/재치/위트' 두 가지 기준이 모두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두 가지 평가 기준이 적용된 게시글 및 댓글

평가 기준	세부 항목	예시
공연성	라임	하데스 본 ㅋㅋㅋ들 여기 번역 어떻게 됐어? Come home with me에서 lyre랑 liar 발음 가지고 언어유희하는 부분 음원 들으면서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했는데 살렸어????
ST의 의미 및 효과	유머/재치/위트	↳ 기타도 치죠 / 허풍도 치죠 이거였던듯? 리라 대신 기타로 바뀌어서... ↳ 오오 괜찮다 고마워!!!!

지금까지 논의한 온라인 커뮤니티 관객들의 네 가지 세부 평가 기준 항목을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제도권 평단의 평가 기준 항목 여섯 가지, 즉 '원작의 충실한 재현', '원작의 효과', '표현의 자연스러움', '공연성', '관객의 반응', '사회 및 문화적 배경' 등과 비교할 경우, '원작의 충실한 재현'과 '관객의 반응'에 해당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고 'ST의 의미 및 효과', 'TT의 언어적 완성도', 'TT 자체의 의미 및 효과'는 각각 '원작의 효과', '표현의 자연스러움', '사회 및 문화적 배경'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표 7> 참고).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TT의 언어적 완성도'는 단순히 언어적 자연스러움에 초점을 맞추었던 평단의 기준에 비해 TT에 사용된 언어의 미학적 가치까지 반영하고 있으며, 'TT 자체의 의미 및 효과'는 '사회 및 문화적 배경'이 검토하는 친숙한 소재, 표현의 사용을 통한 현지화는 물론, 서사, 캐릭터의 개연성

등 TT의 전체적인 작품적 완성도와 관련된 측면을 점검하고 있다는 점은 관객이 평단에 비해 번역 평가의 검토 범위가 넓고 심층적임을 보여준다.

표 7

온라인 커뮤니티 관객과 제도권 평단의 세부 평가 기준 항목 비교

온라인 커뮤니티 관객		제도권 평단	
없음		원작의 충실한 재현	ST 언어 및 비언어 기호의 형태가 유지됨
ST의 의미 및 효과	ST 언어 및 비언어 기호의 형태는 달라지더라도 의미나 효과가 등가를 이룸	원작의 효과	ST 언어 및 비언어 기호의 형태는 달라지더라도 유머, 감동 등의 효과가 등가를 이룸
TT 자체의 의미 및 효과	ST와는 다른 TT 자체의 의미나 효과가 발생 + 작품의 전체적 완성도	사회 및 문화적 배경	TT의 사회 및 문화적 배경에 친숙한 소재, 표현 등이 사용됨
TT의 언어적 완성도	언어 기호가 TT의 사용 관습에 적절함. + 언어의 미학적 가치	표현의 자연스러움	언어 기호가 TT의 사용 관습에 적절함
공연성	TT의 언어 및 비언어 기호가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룸	공연성	TT의 언어 및 비언어 기호가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룸
없음		관객의 반응	실제로 TT 관객이 특정한 반응을 보임

관객들은 또 아래 예시에서와 같이 해당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번역에 대해서도 단순히 이분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 작품의 번역에서 발생하는 다층적인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한 결과물이 도출된 이유를 정교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객들이 작품뿐 아니라 뮤지컬 번역 과정 및 참여 주체에 대한 포괄적 지식을 바탕으로 번역을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번역극보다 좀 더 다듬어진 어조에 친숙한 문화, 납득되는 지명을 쓰면 원작의 감성이 완전히 뒤바뀌기도 하거든. 예를 들면 맘마미아의 도나 같은 캐릭터를 우리나라 버전으로 새로 쓴다면 말야.. 원작의 도나를 볼 때처럼 거침없고 당당하며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느끼기보다는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문란한 과거에 딸내미 결혼 앞두고 사랑놀음에 정신 팔린 주책맞은 아줌마로 느끼기 쉽다고나 할까..? 라이선스를 떠나서 프로덕션에서도 차라리 관객들을 계속 이질감에 노출시키는 편이 원작의 가치를 더 잘 전달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결과일 거야

초연부터 말 많았는데 그뎨 컨셉이 약간 지구 최후? 느낌이라 거의 멸망하고 남은 인류들이 섞여서 다양한 언어가 공존한다 이런 뉘앙스의 컨셉이었던거 같고.. 영어가 선율이나 박자에 찰떡이라 한글로 바꾸기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거도 사실이라 듣다보니 익숙해지긴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듯

아울러, 번역은 미흡하더라도 그 밖의 요소에서 미덕이 있을 경우 작품 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번역 자체가 작품에 대한 평가를 가를 만큼 결정적인 영향력을 지니지는 않음을, 또는 관객들이 번역을 인지하되 기타 요소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번역은 잘된 것도 있고 이상한 부분도 있는데 배우들이 먹살 잡고 재즈 느낌 살림

번역은 쫘 구려도 배우들이 잘 커버함

전체 게시글 및 댓글 속 각 평가 기준 항목의 출현 빈도에 따른 비중을 정량적으로 비교한 결과, ‘번역 평가’ 내 ‘번역 평가 기준’(177건, 63.2%)의 하위분류에서 ‘TT의 언어적 완성도’가 (72건, 40.7%)로 가장 높았고, ‘ST 의미 및 효과’(43건, 24.3%), ‘TT 자체의 의미 및 효과’(41건, 23.2%)가 그 뒤를 이었다. 즉, 관객들은 뮤지컬 번역을 평가할 때 한국어가 자연스러운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원작의 의미와 효과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원작과 다르더라도 번역된 작품이 그 자체로 뛰어난지 여부도 비중 있게 검토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작품의 경우 관객의 호평과 혹평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아래 예시에서 볼 수 있듯 긍정적 평

가든, 부정적 평가든 이들 세 개 항목이 주요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표 8

긍정적 평가 내 평가 기준 적용 사례

평가 기준	세부 항목	예시
TT의 언어적 완성도	세련됨/ 유려함/ 시적임	<드라쿨라>
		드쿨 진짜 초월번역,,,가사가 다 시적인데 또 와닿아..
TT 자체의 의미 및 효과	감동	TTTTTT 나와 춤춰요 새벽을 향하여 <- 이거 진짜..
TT의 언어적 완성도	세련됨/ 유려함/ 시적임	드쿨에서 나의 맘의 빛 태양이 아니라 그대 눈빛 여기 넘 좋아 TTTTTT 밤이 되면 차오르던 그리움의 눈물도 그대 품에 안긴 순간 눈처럼 사라지고 심장이여 뛰어라 더운 피로 내 모든 발걸음을 이끌어 달리 게 하라 TT
ST의 의미 및 효과	유머/ 위트/ 재치	<썸씽로튼>
		마지막 햄~오믈렛 뮤지컬 진짜 미친듯이 웃겨서 정줄 놓고 웃어쌌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T 자체의 의미 및 효과	캐릭터	<지킬 앤 하이드>
		별개로 난 키프롱 그 가사가 하이드한테 잘 어울리는 대사라고 생각해. 하이드는 지킬을 죽이고 자기가 그 몸을 차지하려고 하는 인격이니까.
TT 자체의 의미 및 효과	서사/맥락	뮤지컬 넘버 라이선스 올릴 때 번역은 원문 의미만 단 순히 가져와야하는 게 아니라 악보에 맞춰서 전체 극 의미에 맞게 짝 같아야 하는 거라서 원문의 그들은 절 대 분리될 수 없어 > 공존은 불가능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싶긴해도 분리해서 하이드만 죽이고 지킬만 살아남는 건 불가능하다는 전체 의미라고 난 이해하고 있어!

표 9

부정적 평가 내 평가 기준 적용 사례

평가 기준	세부 항목	예시
TT의 언어적 완성도	비번역	<위키드> 극혐보단 밥맛이 낫지... 것보다 위키드는 <u>영어단어 그냥 통으로 쓰는게 더 별로야</u> ㅋㅋ 극혐이 더 이상... 난 언리미티드가 <u>젤 별로</u>
		<디어 예반 핸슨> 그런데 <u>한국버전 조이가 너무 착하다는</u> 느낌이 들어서 단어 한두개만 추가했어도 <u>괜찮지 않았을까</u> 싶었음
ST의 의미 및 효과	캐릭터	그리고 번역이 TT와 다른건 다 흐린 눈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You will be found -> 그대곁에 이게 정말 최선을이었을까..? 저 번역이 너무 거슬려서인지 개인적으로는 유월 비파운드에 대한 <u>감동이 오히려 좀 축소된</u> 느낌이었음
ST의 의미 및 효과	감동	그리고 재러드의 경우 저 번역이 최선을이었을까 싶은 대사들이 많아서 아쉬웠음. <u>미국정서 농담</u> 이라 당연히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그냥 뽕미 싶은 갑분싸 모먼트가 종종 생기더라.
ST의 의미 및 효과	유머/ 위트/ 재치	그리고 재러드의 경우 저 번역이 최선을이었을까 싶은 대사들이 많아서 아쉬웠음. <u>미국정서 농담</u> 이라 당연히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그냥 뽕미 싶은 갑분싸 모먼트가 종종 생기더라.

제도권 평단의 경우 각 평가 항목의 출현 빈도 비중이 ‘원작의 효과’(29%), ‘사회 및 문화적 배경’(26.9%), ‘표현의 자연스러움’(15.1%) 등의 순서로 높았는데(홍정민, 2023, p. 390),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 항목이 각각 ‘ST의 의미 및 효과’, ‘TT 자체의 의미 및 효과’, ‘TT의 언어적 완성도’에 상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권 평단은 상대적으로 ST의 의미 및 효과 전달을, 온라인 커뮤니티 관객으로 대변되는 비제도권 평단은 TT 자체의 언어적 완성도 달성을 좀 더 중시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순서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제도권 평단 역시 이들 세 개 항목을 가장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권 및 비제도권 평단, 그리고 관객에 공통적으로 소구하는 번역을 위해서는 이들 평가 기준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전체 게시물 및 댓글의 번역평가 판단은 총 184건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가운데 번역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64.7%(119건), 부정적 평가가 31.5%(58건)를 차지하여 부정적 평가가 12.5%에 그친 평단의 평가와는 대조되는 양상을 보였다(홍정민, 2023, p. 401). 이는 커뮤니티라는 창구의 특성상 좀 더 솔직하고 과감한 비판을 개진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되며, 나아가 번역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창구와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5. 결론

5.1 연구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 뮤지컬 평론의 장에서 일간지 등의 제도권 못지않게 영향력 있는 평론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비제도권의 번역 평가 담론 및 기준을 고찰하고 이를 제도권에 대한 분석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한국 뮤지컬 산업 내 전반적인 평가 담론 및 기준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단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3위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theqoo)의 연극/뮤지컬 게시판에서 ‘번역’과 ‘번안’을 키워드로 2017년 4월 1일부터 2024년 10월31일까지 9년 7개월 동안 생산된 1,735개의 게시물과 댓글을 추출해 양적, 질적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선행연구의 제도권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커뮤니티 내 뮤지컬 관객들은 제도권 평단보다 번역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담론 내에서는 제작사, 번역가 등 뮤지컬 번역 참여 주체, 원작의 내용과 장르적 특징, 멀티모달리티와 집단 작업을 특징으로 하는 번역 과정 등을 주로 논의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주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매우 전문적이고 심층적이었으며 단순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번역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천적 양상을 보였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 뮤지컬 평가 담론의 전문성 및 심층성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뮤지컬 관객들로 대변되는 비제도권 평단 역시 제도권 평단 못

지 않게 신뢰성 있는 뮤지컬 번역 평론의 주체임을 시사한다.

둘째, 온라인 커뮤니티 내 뮤지컬 관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번역 평가 기준 항목은 ‘TT의 언어적 완성도’, ‘ST의 의미 및 효과’, ‘TT 자체의 의미 및 효과’, ‘공연성’ 등 네 가지였다. 이를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제도권 평단의 여섯 가지 평가 기준 항목과 비교할 경우, ‘원작의 충실한 재현’과 ‘관객의 반응’에 해당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고 ‘ST의 의미 및 효과’, ‘TT의 언어적 완성도’, ‘TT 자체의 의미 및 효과’는 각각 ‘원작의 효과’, ‘표현의 자연스러움’, ‘사회 및 문화적 배경’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TT의 언어적 완성도’는 단순히 언어적 자연스러움에 초점을 맞추었던 평단의 기준에 비해 TT에 사용된 언어의 미학적 가치까지 반영하고 있었으며, ‘TT 자체의 의미 및 효과’는 ‘사회 및 문화적 배경’이 검토하는 친숙한 소재, 표현의 사용을 통한 현지화는 물론, 서사, 캐릭터의 개연성 등 TT의 전체적인 작품적 완성도와 관련된 측면을 점검하고 있었다. 이는 관객들에게 소구하는 번역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TT의 언어는 물론 작품으로서 전체적 완성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 관객이 평단에 비해 번역 평가 시 검토 범위가 넓고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첫 번째 분석 결과와 함께 비제도권 평단 역시 주요한 뮤지컬 번역 평론의 주체로 인정해야 할 당위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위의 네 가지 기준 항목 가운데 ‘TT의 언어적 완성도’, ‘ST 의미 및 효과’, ‘TT 자체의 의미 및 효과’가 순서대로 자주 등장했으며 평가가 공통적으로 나타난 작품에 대해서도 이들 세 개 항목이 주요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특히, 제도권 평단 역시 이들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뮤지컬 번역 시 제도권과 비제도권 평단, 그리고 관객 모두에 공통적으로 소구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 가지 평가 기준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번역학 및 공연예술학과 관련 업계에서 체계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뮤지컬 번역에 대한 평가 담론 및 기준을 제도권과 비제도권 평단

을 아울러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초의 시도로 학술적, 실무적, 교육적, 사회적, 산업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한국 뮤지컬 평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구체적으로 고찰되지 않던 온라인 커뮤니티 내 관객들의 평가 담론 및 기준을 세부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이들 비제도권 평단의 번역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나아가 번역 평론 주체로서 이들의 신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비제도권 평단을 주요 평론 주체로 인정할 경우, 뮤지컬 산업 내에 좀 더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평가 담론이 구축되면서 번역을 비롯한 작품 평론 전반의 질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비제도권 평단의 번역 평가 기준 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제도권 평단과 비교하여 현재 뮤지컬 산업 내 주요 평가 주체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번역 평가 기준 항목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동안 산발적이고 암묵적으로만 이루어지던 뮤지컬 번역 평가에 대한 공통적이고 일관적이며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연구 방법적으로 번역 평가 기준과 담론에 대한 기존 질적 분석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량의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및 범주화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연구자가 결과를 공유하고 상호 논의를 거침으로써 주관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번역 평가 기준 항목은 특정 작품 번역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시 좀 더 객관적인 잣대를 제공하고 번역 참여 주체와 학습자들에게는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번역 지침을 제시하는 등 번역학 및 공연예술학과 관련 산업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분석 대상이 일부 커뮤니티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자들이 대부분 마니아 관객으로 전체 관객을 대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석 대상을 좀 더 다양한 커뮤니티와 광범위한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확대해 비제도권 평단의 평가 담론 및 기준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제도권에 대해서도 분석 범위를 전문지 등으로 확장하고 분석 결과를 전문가 집단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보완할 경우 보다 포괄적이고 활용도 높은 평가 담론 및 기준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n.d.). 공연통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2025.
1.25. 검색, <https://www.kopis.or.kr/por/main/main.do>
- 김영주. (2012. 8. 14.). 피쳐 | [Special] 한국 뮤지컬 마니아 1. 더뮤지컬 107호. <https://www.themusical.co.kr/Magazine/Detail?num=1032>
- 김현식. (2025. 1. 13.). 제9회 한국뮤지컬어워즈 대상작에 ‘일 테노레’ 선정 (종합).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11526642037392&mediaCodeNo=257&OutLnkChk=Y>
- 김현정. (2021. 1. 12.). ‘신인상’ 유키스 이준영 “아이돌 편견 버리고 믿어줘 감사”(종합)[한국뮤지컬어워즈①]. 엑스포즈뉴스.
<https://www.xportsnews.com/article/1376906>
- 박혜성. (2017). 한국 뮤지컬 마니아 관객 활동의 문화 정치적 함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중심으로. 언론과사회, 25(1), 37-96.
- 성초림. (2013). 문학번역 평가의 시대, 무엇이 좋은 번역인가? 세계문학비교연구, 42, 173-192.
- 손지봉. (2006). 문학번역 평가기준에 관하여.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8(1), 87-106.
- 송주희. (2015. 1. 22.). [송주희 기자의 About Stage] 역할 커지는 뮤지컬 번역... 말 리듬 감성을 요리하다. 서울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1&aid=0002630824>
- 신성아. (2022. 1. 11.). ‘올해의 관객상’ 권민정 “작년 180여 편 관람, 덕업일치 했죠”. 뉴데일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1/11/2022011100084.html>
- 안세영. (2023. 7. 6.). 피쳐 | [SPECIAL]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뮤지컬 마니아 ③ - 오로시. 더뮤지컬 225호.
<https://www.themusical.co.kr/Magazine/Detail?num=5135>
- 안시은. (2020. 1. 21.). <호프>, 제4회 한국뮤지컬어워즈 대상 포함 8관왕...

김선영, 조형균 남너주연상. 더뮤지컬 222호.

<https://www.themusical.co.kr/News/Detail?num=12829>

예술경영지원센터. (2024). 2024년 공연예술조사 (2023년 기준).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10월4일 검색.

윤지관. (2013). 문학번역평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통역과 번역, 15(2), 175-190.

이상원. (2008). 문학번역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번역학연구, 9(2), 149-166.

이성은. (2013). 뮤지컬 미스사이공의 노랫말 번역 분석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이솔희. (2023. 7. 6.). 피쳐 | [SPECIAL]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뮤지컬 마니아 ④ - 테프의 차뮤. 더뮤지컬 225호.

<https://www.themusical.co.kr/Magazine/Detail?num=5136>

이솔희. (2024. 1. 24.). 피쳐 | “행복을 끌어올려” 제8회 한국뮤지컬어워즈 빛낸 소감들. 더뮤지컬 226호.

<https://www.themusical.co.kr/Magazine/Detail?num=5273>

이은숙. (2011). 문학번역평가에 대한 고찰: 충실성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5(2), 109-124.

이지민. (2019a). 가창용이성(singability) 관점에서 본 국내 라이선스 뮤지컬 가사 번역의 문제점. 통역과 번역, 21(1), 85-108.

이지민. (2019b). 라이선스 뮤지컬 가사 번역을 위한 실용적 지침: 가창용이성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1(2), 145-167.

이지민, 정지윤. (2022). 라이선스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 번역 사례 연구: ‘내일로’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3(1), 101-133.

이형진. (2008). 문학번역 평가의 딜레마와 번역비평의 방향. 안과 밖(영미문학연구), 24, 86-112.

이태훈. (2024. 8. 14.). 브로드웨이에 온 듯... 한국서 맞붙는 토니상 뮤지컬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culture-life/performance-arts/2024/08/14/YZ3A2M36OJDYHKBVYP56JRGEJ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임지우. (2022. 10. 8.). ‘마틸다’ ‘캐츠’ 가족 뮤지컬 잇달아 무대에...관객층 넓힐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7102700005>
- 장민수. (2023. 1. 16.). ‘쇼맨’, 한국뮤지컬어워즈 영예의 대상...‘데스노트’ 4관왕 (종합). 문화뉴스.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6000>
- 전민경. (2025). 초월번역의 특성 연구 - 언론과 대중의 인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제9회 한국뮤지컬어워즈. (n.d.). 제9회 한국뮤지컬어워즈 관객투표단 모집안내. 제9회 한국뮤지컬어워즈. 2025. 1. 6. 검색,
<https://awards.kmusical.kr/9th-mania-apply-announcement/>
- 지혜원. (2012).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 이야기쟁이. 나타.
- 최승연. (2023). 한국 뮤지컬평론의 현황과 지향점에 대한 고찰. 한국연극학, 83, 117-147.
- 홍정민. (2016). 재공연을 통해 본 뮤지컬 가사 번역의 변화와 원인 — 손드 하임의 『스위니토드』를 중심으로. 통역과번역, 18(특별호), 191-241.
- 홍정민. (2020). 국내외 뮤지컬 번역 연구 현황 및 향후 연구 방향. 번역학연구, 21(1), 215-251.
- 홍정민. (2021). 패밀리 뮤지컬 번역과 아동 관객: <마틸다>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2(1), 313-350.
- 홍정민. (2022). 뮤지컬 번역에서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멀티모달적 고찰: <쌈썩로튼>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3(3), 125-153.
- 홍정민. (2023). 한국 뮤지컬 번역 평가 담론 및 기준에 대한 포괄적 고찰: 일간지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4(3), 383-412.
- 홍정민. (2024). 한국 뮤지컬 장, 번역가의 상징 자본, 번역 독사(doxa). 2024년 가을 한국번역학회-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공동 학술대회: AI Turn? 번역학의 새로운 지평과 과제 (pp. 146-161).
- Dresner, E., & Herring, S. C. (2010). Functions of the nonverbal in CMC: Emoticons and illocutionary force. *Communication Theory*, 20(3), 249-268.
- Hsieh, H-F., & Shannon, S. E. (2005).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5(9), 1147-1288.
- Kirk, S. H. (2008). Translated musicals and musical transl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9(1), 283-309.
- Konrad, A., Herring, S. C., & Choi, D. (2020). Sticker and emoji use in facebook messenger: Implications for graphicon chang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25(3), 217-235.
- Pérez-Sabater, C. (2021). Moments of sharing, language style and resources for solidarity on social media: A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Pragmatics*, 180, 266-282.
- Sorby, S. L. (2014). *Translating western musicals into Chinese*. [Doctoral dissertation,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 Tony Awards. (n.d.). Rules and regulations. Retrieved January 6, 2025, from <https://www.tonyawards.com/about/rules-and-regulations/>

On evaluation discourses and criteria of musical theater translation: Focused on online musical theater community

Jung-min Hong

Department of English Linguistic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Kyung-hye Kim (corresponding author, kyunghye.kim@dgu.ac.kr)

Department of English Linguistic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user comments from a Korean online musical theater community with a view to identifying audience's evaluation discourses and the specific criteria they consider when making evaluative comments on musical theater translation. A total of 1,735 comments posted between April 1, 2017, and October 31, 2024, on one of the biggest South Korean online musical theater communities were analyzed qualitatively and systematically using MAXQDA, a tool that enables researchers to code, categorize, and analyze source materials. The findings reveal three main interesting points. First, fans in the online musical theater community under examination actively engage in in-depth discussions on various aspects of musical theater translation, demonstrating a deep understanding of original productions, the complexities of the translation process, and the roles of key stakeholders such as production companies and translators. Second, four major criteria that fans consider when making evaluative comments were identified: (1) linguistic integrity of the target text, (2) meaning and effect of the source text, (3) new meaning and effect of the target text, and (4) performability. Thirdly, translations that satisfy the first three criteria were most frequently discussed and highly prai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interested parties and stakeholders in the musical theater translation industry and research community need to pay closer attention to the identified discourses and criteria to more effectively resonate with the audience who exerts the biggest influence on the country's musical theater market.

Keywords: Musical theater translation; evaluation discourse; evaluation criteria; online community; linguistic integrity of target text; meaning and effect of source text

키워드: 뮤지컬 번역, 평가 담론, 평가 기준, 온라인 커뮤니티, TT의 언어적 완성도, ST의 의미 및 효과

홍정민(제1저자)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학 전공 조교수

drew97@dongguk.edu

김경혜(교신저자)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학 전공 조교수

kyunhye.kim@dgu.ac.kr

논문 투고: 2025년 2월 14일

1차 심사 완료: 2025년 3월 2일

2차 심사 완료: 2025년 3월 8일

게재 확정: 2025년 3월 15일